

금주 미사 독서: 박주원 율리엠타, 박주희 요안나
 다음 주 미사 독서: 최미진 율리안나, 고미현 다미아나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금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마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한진 베드로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교무금: \$10
 봉헌금: \$147
2 차헌금: \$67
 합계: \$224

봉헌봉사:
 윤지희 데레사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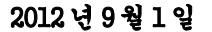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 복음은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논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고집한다며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열심히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회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 바리사이들에게 참다운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의 위선적인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불결합니다. 참다운 깨끗함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참다운 순결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불쌍한 이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때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가] 시작: 84 봉헌: 220 성체: 197 파견: 283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

최인호 베드로 / 작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시원해. 너무 들어와라.” 속은 아들은 냉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믿을 X 하나 없구나.” 미국의 CIA는 거짓말을 백색, 회색 그리고 흑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흑색 거짓말과 완전한 거짓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선의라는 이름의 백색 거짓말. 그 경계가 애매한 회색 거짓말이 있는데, 아들을 속인 아버지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 중의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으므로 죄의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들에게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그 빛깔이야 어떻든 모든 거짓말은 악의 독소임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악마)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요한 8,44) 이러한 치명적인 거짓말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부터 바위라고 불릴 만큼 신임을 받은 으뜸 제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아가 하룻밤 먼저 예수를 만나 함께 지낸 후 형을 데려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앞으로 너를 게파(베드로)라 부르겠다.’(요한 1,42)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를 ‘눈여겨본 첫 순간’에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8-19)고 미래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태 26,35)라고 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 대사제 앞에 끌려가 조롱당하는 모습을 바깥 뜰에서 불을 쬐며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여중 하나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 돌연한 상황을 베드로는 두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일어나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중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यो.’(마태 26,71 참조)라고 거듭 말합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마르 14,74) 잡아 땀니다. 이것이 악마가 노리는 거짓말의 비수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저처럼 뽐맞고 조롱을 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믿었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으며 그래서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할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내는 법이다.’라고 말했듯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루카 22,61 참조)과 마주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읊니다. 아아, 주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본 것은 3년 후인 그때가 처음입니다. 주님, 닭이 울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직 저는 주님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어 아직도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어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사도 9,18) ‘몸의 등불인 성한 눈’(마태 6,22)으로 삼라만상을 온전히 볼수 있게 하소서.

† 공지사항

1. 신임 사목위원 선임
- 사목부회장: 조남석 형제님 (홍보 담당과 겸직)
- 구역담당: 이종재 형제님

2. 정회성 형제님/이한은 자매님 댁에서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심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카톨릭 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초심, 열심, 그리고 뚝심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은 초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심 속에 열심과 뚝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뚝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初心)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첫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이 싹트고 마음의 열정이 식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심을 잃어버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 ~)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위선자로 칭하며 혹독한 비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 7,6 ~-8)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조상들의 율법에 충실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발전시킨 많은 규정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서는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손을 씻는 행위의 본질인 청결이나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율법이 주는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외적인 형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래의 정신이 흐려지고 겉스레 결다리가 붙어서 결국에는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 첫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듯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서는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